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요엘서-

결심의 골짜기

(요엘 3장 1 - 21절)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요엘서 전체에 깊이 깔려 있는 메시지는 내용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이방인에 대한 심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흠여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2절).

요엘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내 백성’,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2, 3절).

내 백성을 공격하고, 내 백성을 비난하고, 내 백성을 무너뜨린 이방인들, 하나님인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했으니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인생을 번성케 하셨지만,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족속을 이루게 하시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아닌 다른 왕을 찾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새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영어로 redemption,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 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열국에 대한 도전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 될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10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국에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열국들은 연합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4과 미가 4:3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하

성도는 땅 위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덜 억울할 텐데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더 큰 복 받기 위함입니다. 어려울 때를 잘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셨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평화의 시기가 변하여 전쟁의 시대가 올 것을 말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11절).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땅 위에 없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13절).

곡식이 익어 낫을 써서 베어야 하겠는데 낫은 무기로 변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나 마실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입니다. 곡식이 익었으나 낫이 없고, 포도주 독이 넘쳐나도 사람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복도 놓치게 됩니다.

3. 피난처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16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있지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을 심판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를 침략한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대하 20:1-20).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열 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통곡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땅 위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덜 억울할 텐데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더 큰 복 받기 위함입니다. 어려울 때를 잘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며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20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있겠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땅 위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함을 모두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에 계십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2회 KIMCHI 세미나 시작된다

미국 이민 선교 100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세미나로 모여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IT 시대를 맞아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의 필요가 간절할 때를 맞이한 조국과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은 미국 이민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청교도세미나를 우리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제12회 KIMCHI 세미나로 대체하게 되었다. 미국 각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 교역자 70여명이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다. 세미나는 청교도 신앙, 정신, 역사, 교육, 신학, 목회, 정치 그리고 칼빈주의 등으로 구성되며 10번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시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시간	일자	3월 12일 (수)	3월 13일 (목)	3월 14일 (금)	3월 15일 (토)
05:30-06:00		새벽기도회 (이 중은)			
06:15		6:30	산책및자유시간		
		7:30	조찬		
08:00		개회예배(김 의환)	조찬		
08:50		Coffee Break			
09:00		강의2 청교도역사 (임 희환)	강의5 청교도신학 (이 신헌)	강의8 청교도교육 (이 신헌)	
10:00		토의			
10:15		Coffee Break			
10:30		강의3 청교도정신 (D.W.H Thomas)	강의6 청교도목회 (J.S Carson)	강의9 청교도정치 (오 덕교)	
11:30		토의			
11:45		Lunch			
13:00		방문: Union Church (외인모지)	방문: 순교자 기념관	사진촬영	
13:30	강의10 미주이민과한국교회 (이 만열)				
14:30	토의				
14:45	coffee Break				
15:00				예배예배(이 원상) 성찬식 (이 중은)	
17:30		Dinner			
19:00		도착(등복)	강의4 청교도신앙 (박 홍규)	강의7 청교도와 칼빈주의 (임 원택)	
20:00		토의			
20:15		(서울교회)	삼정Hotel		
20:20		강의1 청교도윤리 (양 낙훈)			
21:30		삼정Hotel			

육사 제59기 졸업 파송예배 주관한다

3월5일(수) 오후 7시 육사 교회당에서

우리교회는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한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군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장병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는 초급장교들의 복음화가 중요하여 매년 육군 사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육사 세례식'과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하여 각 부대로 부임하게 되는 졸업생을 파송하는 졸업 파송예배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교회는 육사 제59기 졸업 파송예배를 주관하게 되어 육사 제59기 졸업파송예배를 오는 3월 5일(수) 오후 7시 육사 교회 본당에서 갖게 되며 졸업생 140명이 파송 받게 된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설교를 담당하게 되며 장로 10분과 비전2020 임원 및 성도들이 참석하게 된다. 졸업생들에게는 선물로 지휘봉을 선물하게 된다.

제3기 단기 선교팀 지원자 모집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금년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오는 3월 9일까지 마감되는 단기 선교팀은 3월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 파송하게 된다.

교회학교 운영,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및 개인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번 선교팀의 단장으로 김광신 장로를 임명하였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있다.

성경통독자 시상 및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일 셋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을 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2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자 시상을 한다.

또한 올해부터 장학회(위원장 전기섭 장로)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수여기로 한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6명의 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성경통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독: 김복녀 권사(4교구) 유복달 권사(4교구)
- 1독: 강영자 집사(1교구) 임인숙 권사(3교구) 김진숙 권사(9교구) 이순영 집사(10교구) 조옥섭 권사(11교구) 전원순 권사(12교구) 유성임 집사(14교구) 한광파 집사(14교구) 최중시 장로(10교구)

함께 찬양해요

글로리아 여성 중창단은 주일 찬양 예배와 목회자 세미나의 찬양을 맡고 있는 찬양팀으로 새대원 00명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기타, 플룻, 바이올린등 관현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더욱 환영한다.

또한 기타와 플룻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문의 바란다.
문의는 사무국이나 주일 오후 3시 606호 글로리아 중창단실로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단 4:37)

Now I Nebuchadnezzar, praise and exalt and glorify the king of Heaven, because everything he does is right and all his ways are just. And does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 (NIV Daniel 4:37)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임희춘 집사



앞이 안보일 정도로 함박눈이 몰아치는 저녁 딸 아이가 있는 고등부 수련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련회장을 향해 떠난 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함과 기도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되면서 이천의 수련회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때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찬양집회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악기들의 조율이 잘 안되어 웃음으로 시작된 찬양집회는 점점 힘을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NLC 학생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딸이었습니다.

수련회로 모이기 전에 뭔가 모르게 힘들어하면서 고민을 하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과연 올바른 찬양인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로 고등부를 맡으신 오 목사님은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찬양을 드린 후 '다니엘이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시종일관 코미디를 보는듯한 재미있는 설교 속에 아이들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설교 후 합심기도로 들어간 수련회장은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며 회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진정한 '수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의 감격스

러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응답을 받았나 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저의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몰래 훑쳐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교회 교회학교에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이들이 진정한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천국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좋은 교회학교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교역자 기정을 찾아서

(김희정 전도사님 가정편)



이복에서부터 3대째 신앙을 지켜오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김희정 전도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전공한 케이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으나 당시에 가까운 친지 가운데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사역

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일반대학에 진학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활 이후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신학공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한다. 김전도사님은 먼저 남한산성에 위치한 영락여자신학교에 입학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었다.

영락교회에서 유년부를 3년째 섬기고 있던 작년 말 새로운 임지를 위한 40일 동안 아침금식을 한 이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교회가 바로 서울교회다. 현재 부산에서 권사님으로 계신 언니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된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였으며, 성도들의 순수함과 신실함이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였으며, 지역의 영적성장과 부흥을 위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기에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셨다고. 현재 초등부와 수료 어린이 예배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희정 전도사님은 평소 "네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잠언 27:23)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심을 늘 되새기고 있다.

김전도사님은 초등부에 부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우 민감하게 열려있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과 교사들의 사랑으로 양육된 어린이들을 보며, 이들이 이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약속해 주신대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2:14)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 즉 세상의 거센 물결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헤쳐 나가며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wig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며 경건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사명을 다할 것들을 다짐하신다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은 기독교교육은 전공하시면서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영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관한 논문("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과 실제(가제)")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족으로는 영락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머니와 언니, 인천에서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는 오빠가 계시며, 가족찬양으로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즐겨 부르신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전도사님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만큼이나 짧은 인터뷰이지만, 장직한 사역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소정 (편집부)

현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드리고 유명한 성도(13교구)



벌써 일 년 전의 일이다. 이사를 온 후 은마 아파트 정문에서 본 서울교회의 모습은 나뭇잎 사이에 가려 그림처럼 예쁘게 보였다. 이런저런 곡절을 뒤로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교회가 아직 현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현당? 나는 사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결국 현당을 위한 작정기도와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먼저 서울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수고가 얼마나 컸으리라고 짐작하면서 한편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다.

대치동이 유명학원가와 좋은 학교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 나 역시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왔고 좋은 목사님과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에 힘입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중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먼저 계신 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이나마 상상이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상도 하시지! 나 같은 사람도 함께 동참하라고 기

회를 준 것 같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참 감사했다.

그때 가정적으로 주변 친지한테 얼마의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남편과의 논하여 작정하고 첫 번째 건축헌금을 드렸다. 어찌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났다. 사실을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드린 건축헌금이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내가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척 마음이 기뻐다. 벽돌 한 장이라도 정성껏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두 랩톤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많이 바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현당식을 해야 한다. 물론 교인 중에 그 돈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재력가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헌금도 아름답다. 그러나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 하면 내 교회라는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 얼핏 그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새 교인인걸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을 현당하는데 액수를 떠나 내 교회에 벽돌 몇 장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드린 건축헌금을 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창단예배
 및
선수선서식
 2월25일 12시 801호 만나홀에서

서울교회 유년부는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축구를 통한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여 오늘 2월25일 12시 801호에서 창단예배 및 선수선서식을 갖게 된다.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은 매주 토요일 은마아파트 십자공원에서 해오던 유년부 축구전도를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화 시켜 활성화 시키게 된 것이다.

창단예배 시 교회학교 교장이신 이종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선서식에서 단기를 수여하며 선수를 격려하게 된다. 앞으로 필그림 축구단은 전도에 더욱 힘써 어린이 전도의 초석을 든든히 하게 된다.

한편 창단식에 참석하는 초등학교에는 축구공을 기증하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참석하여 어린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최낙준 집사(사랑부 교사)

사랑부는 어느 교회학교 부서와 달리 유치부부터 40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령별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랑부 교사들은 기도를 하며 히브리서 13장 15-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왕과 아합 왕의 예배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유연한 몸놀림의 율동 찬양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OHP 연극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종이위에 지금까지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며 촛불 기도 후

십자가 형틀에 박힌 못에 직접 초를 꽂는 순서는 이번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홀짝 커버린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란 만큼이나 귀를 쫑긋거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에 마음까지 뿌듯해졌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불편한 몸으로 오랜 시간동안 피곤했는지 선물로 받은 간식 봉투가 잠을 이기지 못한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아이가 작은 예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치 신학세미나를 아십니까?

김치세미나는 김치(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즉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개최하는 신학세미나를 말한다. 해마다 국내외 목회자들의 '학문적 지교성'과 '영적 성숙'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주 앞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행사이며 해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진행해왔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신학세미나 등 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담임 이종운 목사를 주축으로 온 교회가 꾸준히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지난해까지 우리교회는 모두 10차례나 이 행사를 열었다. 지난 1990년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구권 7개국 지도자 30여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한중수교가 있기 전임에도 중국계 목회자 30여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고, 이어 92년 3차 인도와 스리랑카의 회교권 목회자 34명, 93년 4차 아프리카

권 목회자 27명, 5차 러시아 목회자 25명, 6차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교계지도자 31명, 7차 오세아니아권 28명, 8차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아시아 지도자 22명, 9차 주한 외국선교사 3백여명, 10차 아프리카권 23명을 초청했다. 지금까지 전세계 60여개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 무려 7백여 명이 우리 교회의 김치 신학세미나를 거쳐간 것이다.

또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새벽기도운동을 우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몸소 체험하며, 토의와 나라별 모임을 통해 자국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 1996년 세계 로잔 중앙위원회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또 세계로잔의 한국외장직을 수행하던 담임 이종운 목사는 지난해 세계로잔의 아시아 외장직을 맡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 5차 아시아 로잔대회가 우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18개국에서 120여명의 교계지도자가 참가하여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교회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젊은 지도자들을 발굴 격려하는 기회

로 삼았다. 우리교회는 이 대회가 김치신학세미나와 연장선상에 있는 대회라는 인식이래 지난해에는 김치세미나를 따로 열지 않고 이 대회에 준비와 행사에만 집중하여 전 성도가 참여하고 헌신한 끝에 은혜 중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김치세미나가 단순히 타 문화권 국가의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행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교회의 선교활동이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미국 이민 선교 백주년인 올해에는 그동안 우리교회가 김치세미나를 통해 일궈 놓은 이같은 선교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이민 선교 백주년을 기념한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이 절실히 요구되는 조국의 현실 앞에 청교도 신앙과 정신, 역사, 칼빈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하게 된다. 해마다 더해 가는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 속에 이번 청교도 세미나에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편집부)

대학부 수련회를 마치고 **성령이여! 이제는 나의 삶 속으로**

오경례 (대학부 79계열)

'성령이여 이제는 나의 삶 속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떠난 동계 수련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에 성령에 대한 잘 모르던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장재환 목사님과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하였고 어떻게 성령을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알게 하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종운 목사님의 '성경적 통일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특강은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와 북한의 올바른 통일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우리의 잘못될 수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갈급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갔던 나에게 첫 번째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사명감이 있듯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나에게 갈급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사명감에 대한 물음에 응답은 GBS공부를 하면서 조장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 응답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였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를 찾을 때 우선시 해야 하는 것으로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것 삼으라고 하셨고, 그런 것이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셨다. 바로 의료 봉사인 것이다. 나는 치과 위생사인데 그

것을 통해서든지 다른 의료 분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신 의료계통의 달란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욱더 기도해보아야겠지만 어떤 큰 선을 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와 준비를 하고 간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이 수련회를 오래전부터 각시간의 계획과 수련회의 구석구석을 준비해온 임원단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준비한 악기 팀과 찬양 팀 여러분, 수련회 책자를 제작하느라 수고한 편집부 여러분, 재미있는 성경을 준비한 성극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세상의 일들을 뒤로 미뤄두고 온 많은 지체들, 단 하루라도 참여하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많은 직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했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승동 기도원 분들, 바쁜신 가운데 먼 길을 오신 이종운 목사님, 박귀환 목사님, 대학부 담당 장재환 목사님, 바쁜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현경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한 너의 모습이 생생하다. 하나님께서 낮게 해주실 거야. 현경아 파이팅!!

마지막으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교회 결연 현황 (2월9일 현재)

100	참빛교회 B	이창재	에스더 여전도회
101	서광교회	강순오	에스더 여전도회
102	특리교회	이말음	에스더 여전도회
103	세간교회	남상휘	오형철 · 신동기
104	운정대일교회	정영섭	고아라 · 고요한

†정장: 98 신일교회 결연은 4-11대리방과 순례자입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월) 성경 신학회 신학 발표회에서 개회 설교한다.
- 남태운 권사(유치부 부장) 유치부에 OHP1대 기증
- 금주의 식사: 손병석 집사 김현정 권사기장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잘 활용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